

지역 소식통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교육 운영 재개

김제시는 그동안 코로나 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중단했던 '지평선아카데미' 교육을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다.

10월에 다시 시작되는 지평선 아카데미는 월 2회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된다. 김제시는 강연 참석자 전원에게 개별 체온측정, 강연장 소독 및 손 소독제 사용 등 3단계의 철저한 방역망을 준비할 예정이다며 강연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시에만 입장이 허용되고, 참석인원 또한 90여 명으로 제한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코로나19 특별 지원

완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농촌관광 예약 취소와 방문객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공공금 및 자부담 인건비(4대 보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방문객·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지난 9월 체험휴양마을을 찾은 방문객은 총 5만1,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7,000여명에 비해 50%가 줄었다.

매출액은 8억8천만원으로 같은 기간 14억3,000만원 대비 40%가 급감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매출이 감소된 2개 마을에는 마을당 190만원을, 나머지 7개 마을에는 마을당 140만원을 지원해 총 1,3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매출액 및 방문객이 감소가 없는 마을은 지원이 제외된다.

군은 변화하는 농촌관광 트렌드에 맞춰 군에서 추진 중인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과 연계하고, 소규모 가족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수소신산업 육성 '박차'

박성일 군수·안호영 국회의원-정세균 총리 면담... '전북형 수소경제산업' 추진 적극 건의

완주군이 수소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상용차 중심의 수소신산업 육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날 박성일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방문해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상용차 중심의 수소신산업 육성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전북형 수소경제 신산업 육성'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정세균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수소경제위원회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하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프로젝트로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수소시범도시 완주군은 현대자동차와 일진복합소재, 한솔케미칼 등의 수소기업과 우수한 연구 인프라가 특트하다. 이에 현대 수소상용차를 중심으로 한 수소전문기업과 연관된 부품전 후방산업 육성,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집중화하는 '진환경 수소신산업 지구'를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정치권과 함께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역구 안호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K-뉴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완주군의 수소신산업 육성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정세균 총리 면담 또한 안 의원이 직접 주선한 것으로 국정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박성일 군수와 함께 총리를 직접 면담해 수소경제위원회 아젠다 채택과 내년 관련부처 담당성 용역 추진에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현대상용차를 비롯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신산업으로의 산업전환을 빠르게 이루어 지역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완주군, 전북도와 함께 정치적 역량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의 수소경제신산업 육성은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지역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정부 수소경제 육성과 한국판 뉴딜의 성장전략에 발맞춘 것으로 지역에서 감점을 갖춘 상용차

산업은 수소경제 사회로 빠르게 재편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자 하는 지역경제 혁신성장의 핵심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다.

전북도 또한 전북형 수소신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조만간 실시하고, 전북형 뉴딜 핵심프로젝트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완주군과 협력해 부처 담당성 용역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수소경제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분야로서 우리 지역이 수소신산업으로의 성장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수소신산업을 통한 지역산업의 부흥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반드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사회참여가 노년기 우울 줄여준다'

완주정신건강복지센터, '독거노인 우울 연구보고서' 결과물 발표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노년기 우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만큼 이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완주지역 60~90대 독거노인 1,065명을 대상으로 최근 자살사고와 우울, 사회참여, 신체질환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상호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연속형 독립변수가 연속형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분석을 여러 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며, 통상 유의확률(p)이 0.05보다 낮으면 서로 상관성이 있는 유의(有意)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p)이 0.05보다 낮은 수치(p<0.0001)를 보여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참여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도 유의(p=0.0022)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신체질환 수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p)이 0.05보다 높은 것(p=0.2688)으로 분석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 독거노인들의 질병 수는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연구 자료는 결론적으로 노인들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에 대한 대처능력과 사회참여를 높이면 자살사고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우울과 자살사고로 인해 힘들어 하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우울과 자살문제를 완화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앞으로 돌봄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정서지원 서비스도 강화해 노인의 우울감과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고용안정일자리센터, 찾아가는 아동 상담

김제고용안정일자리센터(센터장 김태환)는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취약계층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제시 19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구직자들을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서 취업상담을 지원하고 틈새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시민들의 취업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센터는 지난 7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564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구직상담을 완료했으며, 58개의 구인처,

385개 일자리를 발굴하여 505건의 취업 알선 실적을 올렸다. 이를 통해 지역 내 265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가시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향후 연중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은 대형마트, 아파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의 유통량이 높은 곳을 찾아가 구직신청서 작성 및 취업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와 맞춤형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의 구인처와 구직자를 위해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일자리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신규시책 및 국도비 예산 발굴 보고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대안 미래 신성장 동력 전략사업 발굴

김제시는 27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박준배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시책 및 국·도비 예산 발굴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포스트 코로나 및 정부의 K-뉴딜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7기 남은 2년을 이끌어갈 국·도비 예산사업, 뉴딜사업, 신규시책, 제도개선 등 미래 신성장 핵심 동력 전략사업에 초점을 두어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 산업진흥센터 구축(81억원), 전기 특장 및 기계 지식산업센터 구축(250억원), 미래형 농기계·건설기계 자율작업 공통 제어부품 기반구축(110억원), 표준공장



김제시는 27일 시청에서 박준배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시책 및 국·도비 예산 발굴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증축(350억원), 폐 지방어항 활용 해안레저 관광공간 조성(6억원), 친환경 전기 굴삭기 보급(200억원), 스마트솔루션 헬리콥터 사업(6억원), 춘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397억원), 새만금 스마트팜 농지 임대단지 배정 등 총 163건이다.

그동안 김제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발맞춰 김제형 뉴딜사업 발굴 전략회의, 뉴딜 전문가 초청 지역 역량 강화 교육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략적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세종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유망 우수 중소기업 현장 방문

김제시가 27일 양문업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을 비롯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김제시 황산면에 소재한 관란식, 벤치 제조 중소기업 내소날씨엔디(주)를 방문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끊임 없는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소기업에 찾아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중심 행보이다. 내소날씨엔디(주)는 '17년 부안에서

출발하여 '19년 6월 본격 제품양산을 위해 김제에 추가 공장을 세워 사업을 확장했다. 그간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경기장과 공연장 등에 자사 제품을 대량 공급하는 등 동종업계에서는 최고 기술력과 우수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지난해 3월 '스마트벤치'라는 획기적인 제품 개발에 성공해 특허청이 주관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전북도가 주관하는 '전북 도약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발전 잠재력이 큰 기업으로도 알려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